

시민 행복 민의 정치 구현

전주시의회, 개원 1주년 맞아... 박병술 의장 "시민들 의견 더 귀담아 들을 것"

전주시의회가 11일 개원 1주년을 맞아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 더 열심히 뛰는 의회"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제 11회 의회 출범 1년을 맞는 임시회 개회식에서 "앞으로 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민의(民意)의 정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 동안 "의회가 이론 성과와 발전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덕분"이었다며,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시의회는 전주

의 미래를 다지는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과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 해외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왔다.

시의회는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따로 열지 않고, 전반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합심하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주시의회는 11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올바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식을 정착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명문예뮤펀어 김태자 강사를 초빙, 4대 폭력의 개념 및 판단기준, 4대 폭력 발생 원인과 대처방안 등 주요 사례 등을 들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쉽게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송효철 기자



최홍범 홍보담당관, 송승현 청문감사관, 임성재 정보화장비과장, 최원석 정보과장



안상엽 112종합상황실장, 박주현 생활안전과장, 임상준 군산서장, 함현배 남원서장



임종명 김제서장, 박훈기 부안서장, 이동민 임실서장, 박종삼 무주서장

전북경찰청 하반기 총경 인사 단행

지방청 참모 등 12명 보직 이동

경찰청이 11일 전국 총경 270명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전북경찰청에서는 12명의 자리가 바뀌며 교육까지 포함하면 모두 15명이 인사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 참모는 모두 6명이 이동한다.

최홍범 남원서장이 홍보담당관으로 송승현 김제서장은 청문감사담당관, 임성재 부안서장은 정보화장비과장, 최원석 생활안전과장은 정보과장, 안상엽 군산서장은 112종합상황실장, 박주현 임실서장은 생활안전과장으로 자

리를 옮긴다.

일선 경찰서장 역시 6명이다.

임상준 정보과장이 군산서장으로 함현배 112종합상황실장은 남원서장, 임종명 정보화장비과장은 김제서장, 박훈기 홍보담당관은 부안서장, 이동민 청문감사담당관은 임실서장, 박종삼 제주청 해양경비담당관은 무주서장을 맡는다.

이인영 치안지도관은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임명됐다.

김영록 치안지도관은 교육에 들어가며, 윤종섭 무주서장은 경무과 대기발령됐다. /강석훈 기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돕는다

전주시,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 운영

전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여름철 폭염대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 말까지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폭염대책 기간 시민안전담당관과 노인복지부서, 보건소, 건설과 등 관련부서와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폭염대책 기간 중에는 전주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도서관, 주민센터 등 냉방기가 갖춰진 470개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구간 55곳에 한여름 parasol을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늘막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단위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거마공공 △안정길공원 △중산공원 △마천순공원 △선술공원 △아담길공원 △세별공원 △만산5호어린이공원 △덕진공원

등 공원분수대 12개(완산 7개, 덕진 5개)를 가동한다.

아울러, △서신길공원 △신성공원 △이바디공원 △느름근린공원 △하늘공원 △만산2호근린공원 등 6개 공원(완산 3개, 덕진 3개)에서는 바베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주종합경기장과 한빛문화관,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3곳에는 물놀이 시설을 갖춰 운영한다.

이외에도 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주요 도로 41개 노선의 온도 저감을 위해 도로 살수를 실시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광장과 버스정류장 대기구간 등 49개소에 대형일음을 비치하는 '쿨 서비스'도 추진한다.

유영문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폭염특보 시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농업인, 건설근로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무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운영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원룸서 자전거 훔친 20대 검거

원룸에 침입해 자전거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43분경 군산시내 모 원룸에 들어가 4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룸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차량털이 30대 검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 1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주시의회 5분 발언

김윤철 "청년·신혼부부에 반값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장기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출생률 극복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문화경제위원회, 노송, 풍남, 인후3동)은 11일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속된 경제위기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으로 "전주시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및 반값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전주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매입임대 주택사업을 대학교 주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총 24호 매입하여 진행 하는 등 다각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근본적 대안이 될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광역 단위 즉 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정책은 곧 그 지역의 가구 수를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윤정 "친환경차량 확대 기반시설 확충을"

박윤정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은 전주시에 친환경차량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국이 친환경차 열풍인데 전라북도도 전주는 이런 열풍에서 벗어나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의 수소차 보급률보다도 턱없이 낮고 올해까지 겨우 300여대가 보급돼 타 시도와 인구비례를 따져봐도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전주시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설치 12개소, 한국전력설치 6개소, 전주시 설치 3개소 등 겨우 20여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버스 시범사업으로 서울 7대, 광주 6대, 울산 3대, 서산 5대, 아산 4대, 창원 5대씩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당시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수소버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수소충전 기반시설 여건과 지자체의 중장기 수소서비스 보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 보급했지만 전주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명철 "중기 갑질 롯데에 종합경기장 내줄 수 없어"

최명철 전주시의회 의원(서신동, 도시건설위원회)은 11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롯데의 갑질을 성토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매년 연 매출 600억 원이 넘었던 신화는 전라북도 브랜드 인증 등 우량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자 2012년 롯데로부터 사업제안이 들어와 거래를 시작하였지만 그때부터 작자가 누적돼 파산직전에 놓여 롯데로 인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우리 향토기업 청년사업가와 직원들을 짓밟는 롯데에게 종합경기장을 절대로 내줄 수 없다"며,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르고 전북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토로 했다.

그는 "롯데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전라북도 도민과 중소기업 직원에게 갑질을 인한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피와 땀으로 일궈낸 우리지역의 일자리를 파괴시키고 파산물을 흘리게 한 롯데는 전주에서 사업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에너지전환 포럼 개최

전주시는 11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제26차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주지역의 9개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은 안전한 에너지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에너지저장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제25차 에너지전환 시민포럼의 회의결과 보고와 지난달 추진된 지역에너지계획 민간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에너지센터 추진현황 △도시계획 조례 개정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선정기준 개선방안 △전주에너지전환박람회 "나는 뽕뽕이다" 추진 등 최근 에너지전환 관련 이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2247억원 규모 예산 추가 편성

1조8834억원 편성 전주시의회에 제출 심의 요청 대규모 생활SOC·수소 기반사업 등에 중점

전주시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뒀 2247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 1조6587억원보다 2247억원(13.5%)이 늘어난 1조8834억원으로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14.5%에 해당하는 2101억원이 증가한 1조6575억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6.9%(146억원) 늘어난 2259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 계입여금 719억원, 보통교부세 857억원, 특별교부세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377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

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7억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44억원과 수소충전소 구축 30억원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24억원과 신산업용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32억원 등 청년·일자리예산 등이 골고루 책정됐다.

이외에도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30억원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30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15억원 △호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12.5억원 △농촌대로(전미교~전주천교) 확장 25억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산을 편성했다.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4일까지 14일간 개최되는 전주시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적상서 장마철 낙석사고 발생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일 무주군 적상면 과목리에서 낙석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서는 11일 8시 48분경 49번 지방도(무주군 적상면 과목리 구천동 터널 전)에 낙석으로 인해 사고 위험 및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낙석구간에서 현장 확인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이번 낙석사고는 장마로 인한 빗물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일어난 사고로 추정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 '시민 중심' 의전업무 매뉴얼 마련

전주시는 각종 행사에서 불필요한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의전을 지양하고 시민 중심의 의전을 통해 전주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전주시 의전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 의전의 기본방향은 △행사 목적과 성격을 고려한 품격 있는 의전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요소를 지양하는 시민중심 의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의전 등이다.

시는 우선 품격 있는 의전을 위해

빈소개와 인사말 등 기념식 시간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전 매뉴얼은 전주시의 모든 주관 행사를 비롯해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시와의 연관성을 감안해 준용토록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전과 관련해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존중받는 의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